

## PANAS, BMI를 사용한 사상성격검사(SPQ)의 타당화 연구

채한\* · 이수진\*\* · 박수현\*\*\* · 장은수\*\*\*\* · 이시우\*\*\*\*

\*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양생기능의학부

\*\* 경일대학교 심리치료학과

\*\*\*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한국한의학연구원

### Abstract

#### Validation of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 with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on Schedule and Body Mass Index

Han Chae\*, Soo-Jin Lee\*\*, Soo-Hyun Park\*\*\*, Eun-Su Jang\*\*\*\*, Si-Woo Lee\*\*\*\*

\* Div. of Longevity and Biofunction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 Dept. of Psychotherapy, Kyungil University

\*\*\*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Yonsei University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 with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on Schedule(PANAS) for emotionality and Body Mass Index (BMI) for body constituents.

#### 2. Methods

The SPQ along with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QSCC) II, PANAS, BMI was measured with 232 College student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as measured with Pearson correlation between SPQ and PANAS, BMI. The SPQ, PANAS, and BMI score of each Sasang constitution groups based on QSCCII were compared using analysis of variance and profile analysis.

#### 3. Results

The SPQ score of each Sasang constitution groups was significantly ( $p < 0.01$ ) different. The SPQ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ANAS Positive Affect ( $r = 0.201$ ,  $p = 0.002$ ), but not with the BMI ( $r = 0.097$ ,  $p = 0.146$ ). The SPQ-Emotionality scale, unlike other SPQ subscale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PANAS Negative Affection.

#### 4. Conclusions

We performed the constructive validity of SPQ using PANAS and BMI. The SPQ would be useful for the study on psychophysiological mechanism of the Sasang constitutions.

**Key Words:**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Validation, Body Mass Index,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on Schedule, Correlation Analysis, Profile Analysis,

• 접수일 2012년 05월 16일; 심사일 2012년 05월 22일;  
승인일 2012년 06월 20일  
• 교신저자 : 이시우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1-24,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 +82-42-868-9555 Fax : +82-42-868-9388

E-mail : [bfree@kiom.re.kr](mailto:bfree@kiom.re.kr)

•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 I. 緒 論

사상의학의 학제간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객관적인 사상체질의 진단 또는 사상체질별로 명료한 생리병리적인 특성을 제시하는 것이다<sup>1</sup>. 이에 기존 연구를 통해 다양한 체질 진단법들이 연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진단법들의 근간이 되는 생병리기전에 대한 연구들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sup>2,3</sup>.

사상의학에 있어서는 지난 십여 년간 다양한 주변 학문, 예를 들어 의학학, 간호학, 체육학, 심리학, 유전학, 교육학, 영양학, 생활과학, 공학, 인문사회학 등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sup>4</sup>.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학문간 공동 연구는 도리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상의학 연구의 질적, 양적 확대가 정체를 보이고 있다<sup>1</sup>.

사상의학의 응용범주를 확대하여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학제 기법을 활용한 체질별 생병리기전 및 특성의 객관적인 측정이 중요한데<sup>2</sup>, 임상진단법의 개발 과정에서 밝혀진 사상체질별 신체학적, 약물학적, 생리심리학적, 인류학적 특성들을 활용한 생병리학적 특성 및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연구<sup>5</sup>,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개발<sup>1</sup>이 필요하다.

사상성격검사(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상의학에서의 성정(性情)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새로운 생리심리학적 검사 도구로서, 기존의 한의학적, 심리학적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하여 적절한 수준의 검사신뢰도(test reliability),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up>6</sup>.

SPQ의 장점을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SPQ 검사는 태양인/소음인과 같은 범주형 변수가 아니라 연속형, 수치형 척도로 생리심리학적 특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측정 결과를 분석함에 보다 다양한 통계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체질(constitution)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본능적인 거부감을 보이는 많은 타학문 연구자들의 거부감을 우회할 수 있을 것이다.

생리심리학적 측면에서는, SPQ는 Myers-Briggs

Type Indicator<sup>7</sup>,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sup>8</sup>, NEO-Personality Inventory (NEOPI) 등 기존 서양생리심리학적 이론들과의 비교연구<sup>7,9</sup>를 통해 제시되었던 '소음인-태음인-소양인'으로 연결되는 사상 성격의 축(axis)<sup>9</sup>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기존 사상의학의 생리심리학적 연구를 통해서 소양인의 높은 TCI Novelty-Seeking과 NEOPI Extraversion, 그리고 소음인의 높은 TCI Harm-Avoidance가 보고되어 왔는데<sup>8,9</sup>, SPQ는 Novelty-Seeking ( $r=0.462, p<0.001$ ), TCI Harm-Avoidance ( $r=-0.390, p<0.001$ ) 및 NEOPI Extraversion( $r=0.629, p<0.001$ )과 유의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음이 보고되었다<sup>6</sup>.

다만 기존 연구를 통해 신체적(constituent) 측면을 반영하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sup>7,10</sup>나 정서적(emotionality) 측면을 반영하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 검사(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sup>11</sup> 등에서 사상체질간의 유의한 차이가 보고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생리심리학적 요인(factor)들과 SPQ간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상체질별 차이에 대해서는 태음인의 체질량 지수가 소음인 또는 소양인보다 유의하게 높음이 제시되었으며<sup>7,10</sup>,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유의하게 높은 긍정적 정서와 유의하게 낮은 부정적 정서를 지니고 있음이 제시<sup>11</sup>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상체질의 성정(性情)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SPQ를 대상으로 PANAS와 BMI를 활용한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보다 객관적인 임상 체질진단 및 생리심리학적 기초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활용한 학제간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II. 研究對象 및 方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및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 232명을 대상으로 하여, QSCCⅡ로 사상 체질을 분류하고 SPQ, PANAS 및 BMI 검사를 시행하였다. SPQ 및 QSCCⅡ 검사는 232명,

PANAS와 BMI 검사는 227명이 시행하였으며, 결과분석에는 검사가 시행된 225명의 검사결과가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의(KCRC IRB 2010-01)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모든 대상자는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 2. 연구도구

### 가.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QSCC) II

QSCCII는 객관적인 사상 체질 판별을 위하여 1993년 경희대학교에서 처음 개발된 것으로, 주관식 15문항과 객관식 106문항을 합하여 총 1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2</sup>. 체질진단의 정확성과 타당성은 표준화 연구와 타당성 연구<sup>13</sup>를 통하여 제시되었는데, 체질을 정확히 진단해낸 비율인 체질감별정확도(PCP)는 70%, 내적일치도(Cronbachs a)는 태양인 0.57, 소양인 0.57, 태음인 0.57, 소음인 0.63라고 보고되었다.

### 나.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

사상체질의학에서의 성격적 특성을 측정하는 사상 성격검사(SPQ)는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14문항 설문검사로,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부산대학교의 문항개발 및 타당화 과정을 거쳐 2012년 개발되었다<sup>6,14</sup>. SPQ의 하위 척도로는 행동적 측면에서 수동적(passive)/능동적(active)을 측정하는 SPQ-Behavior (SPQ-B), 감정 또는 감성적 측면에서 정적(static)/역동적(dynamic)을 측정하는 SPQ-Emotionality (SPQ-E), 인지 또는 의사결정 측면에서 세심한(meticulous)/쉽게넘어가는(easy-going)을 측정하는 SPQ-Cognition (SPQ-C)로 이루어져 있다<sup>6</sup>.

설문 문항들은 서로 상반되는 성격특성을 제시한 후, 응답에 대하여 각각 1~3점을 부여하는데 2점은 중간을 의미한다. SPQ-B, SPQ-E, SPQ-C는 각각 5~15점, 4~12점, 5~15점의 점수 분포를 지니게 되며, SPQ는 이들을 합하여 14~42점의 범위를 보이게 된다.

본 설문검사의 내적일치도(Chronbach a)는, 행동적 특성을 나타내는 SPQ-B, 감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SPQ-E, 인지, 사고의 특성을 반영하는 SPQ-C에 있어서 각각 0.789, 0.685, 0.711라고 보고되었다. 이와 함께 2주일 간격의 검사-재검사를 통한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SPQ, SPQ-E, SPQ-B, SPQ-C는 각각 0.837, 0.830, 0.748, 0.798라고 보고되었다<sup>6</sup>.

### 다.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본 연구에 사용된 자기보고식 20문항 한글판 PANAS<sup>11</sup>는 Watson 등에 의해 개발된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sup>15</sup>를 이유정<sup>16</sup>과 이현희<sup>17</sup>이 한글화한 것으로, 상호 독립적인 긍정적 (PANAS-PA) 및 부정적 정서(PANAS-NA)를 측정한다. 본 검사는 긍정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10개 및 부정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1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어판에는 긍정적 정서로 분류되었던 '기민한(alert)'을 부정적 정서로 분류하고 있다<sup>17</sup>.

설문 문항은 각각 1개의 심리적인 증상을 대표하고 있고, 최근 일주일 동안의 기분을 '전혀 그렇지 않다(0점)', '약간 그렇다(1점)', '보통 정도로 그렇다(2점)', '많이 그렇다(3점)' 및 '매우 많이 그렇다(4점)'의 5점 평가를 시행한다. PANAS 검사에 대한 내적일치도<sup>17</sup>는 PANAS-PA와 PANAS-NA에 있어서 각각 0.88, 0.87로 보고되었다.

### 라. Body Mass Index (BMI)

BMI는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것으로, 키와 체중을 각각 측정된 이후 계산을 통해 체질량지수를 산출하였다<sup>7</sup>.

## 3.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상체질별 성별 분포 및 연령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각각  $\chi^2$ 와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SPQ와 PANAS, BMI간의 상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QSCCII를 기준으로 한 각 체질군들의 SPQ, PANAS, BMI가 기존의 연구에서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NOVA와 함께 Scheffe의 사후검정을 수행하였으며, 체질들간의 SPQ 및 PANAS 검사결과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 분석(profile analysis)<sup>8</sup>이 추가로 사용되었다.

통계분석의 결과치는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로

표기하였으며, 유의수준으로는  $p < 0.05$ ,  $p < 0.01$  및  $p < 0.001$ 을 사용하였고,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PASW Statistics 18.0 (IBM, Armonk, NY)을 사용하였다.

### Ⅲ. 研究結果

#### 1. 사상체질별 성별 분포 및 연령

본 연구에서는 사상체질별 성별 분포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chi^2$ 를 시행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p=0.061$ ), 사상체질별 연령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p=0.437$ )(Table 1).

#### 2. SPQ와 PANAS, BMI 간의 상관분석

SPQ 및 SPQ의 하위척도들과 PANAS-NA 및 PANAS-PA, BMI 간의 상관성을 Pearson's correlation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SPQ 및 SPQ 하위척도와의 유의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PANAS에 대한 분석 결과, SPQ가 PANAS-PA와 낮은 수준에서 유의한( $r=0.210$ ,  $p < 0.01$ )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SPQ-B와 PANAS-PA 사이에 중간 정도의 유의한( $r=0.324$ ,  $p < 0.001$ )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흥미로운 결과는 PANAS-NA가 SPQ와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PQ 하위 척도들과 낮은( $r=0.186 \sim 0.221$ ,  $p < 0.01$ ) 상관성을 보였다. 이와 함께, PANAS-NA과 SPQ-E ( $r=0.221$ ,

Table 1. Demographic Features and Psychophysiological Measures of Each Sasang Constitution Groups

type	So-Yang	Tae-Eum	So-Eum	Statistical analysis
sex (male/female)	63 (32/31)	60 (40/20)	102 (49/53)	df=2, $\chi^2=5.587$ p=0.061
age	29.59±6.32	28.27±5.48	28.79±5.52	df=2, F=0.831, p=0.437
SPQ#*	30.90±5.24	27.33±5.88	24.43±4.93	df=2, F=28.158, p<0.001 SY>TE (p=0.001), TE>SE (p=0.003), SY>SE (p<0.001)
Behavior*	11.62±2.28	9.91±2.94	8.90±2.45	df=2, F=21.360, p<0.001 SY>TE (p=0.001), TE>SE (p=0.045), SY>SE (p<0.001)
Emotionality*	8.67±2.51	7.23±2.32	7.23±1.97	df=2, F=9.010, p<0.001 SY>TE (p=0.002), SY>SE (p<0.001)
Cognition*	10.62±2.33	10.19±2.61	8.30±2.45	df=2, F=20.061, p<0.001 TE>SE (p<0.001), SY>SE (p<0.001)
PANAS				
Positive Affection	15.21±7.10	15.51±7.90	13.76±5.64	df=2, F=2.436, p=0.090
Negative Affection	11.61±8.01	12.10±7.62	13.78±7.39	df=2, F=1.579, p=0.209
BMI*	21.64±2.27	24.23±2.73	20.85±2.36	df=2, F=35.026, p<0.001 TE>SY (p<0.001), TE>SE (p<0.001), SY>SE (p=0.007)

# SPQ,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PANAS,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on Schedule; BMI, Body Mass Index  
\*,  $p < 0.01$ ; \*\*,  $p < 0.001$ .

Table 2. Correlation between SPQ, Subscales of SPQ, PANAS and Body Mass Index

	PANAS (n=227)		Body Mass Index (n=227)
	Negative	Positive	
SPQ	-0.090	0.201*	0.097
SPQ-Behavior	-0.199*	0.324**	0.053
SPQ-Emotionality	0.221*	-0.065	-0.019
SPQ-Cognition	-0.186*	0.165	0.180*

\*,  $p < 0.01$ ; \*\*,  $p < 0.001$ . Bold represents correlation coefficient over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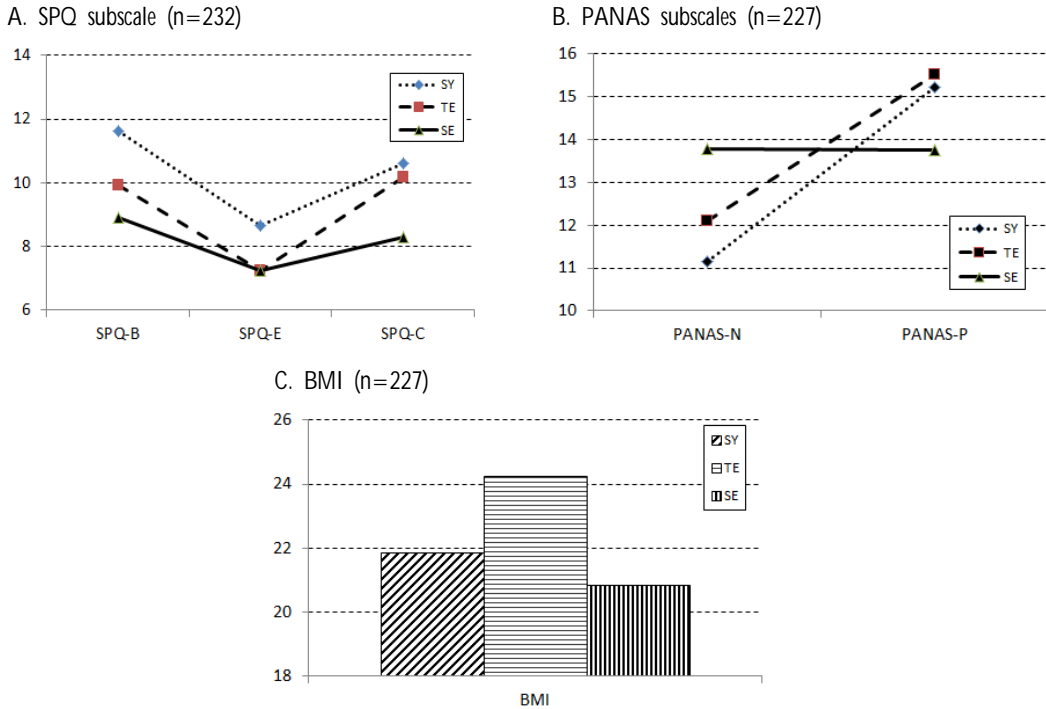


Figure 1. SPQ, PANAS and BMI profile of each Sasang constitution groups

$p < 0.01$ )는, SPQ-B ( $r = -0.199$ ,  $p < 0.01$ ), SPQ-C ( $r = -0.186$ ,  $p < 0.01$ )에서와는 달리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BMI는 SPQ ( $r = 0.097$ )와의 유의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SPQ-C와는 낮은 수준의 상관성 ( $r = 0.180$ ,  $p < 0.01$ )을 지니고 있었다.

### 3. 사상체질별 SPQ, PANAS 및 BMI 차이

OSSCII를 기준으로 한 사상 체질 그룹들간의 SPQ와 PANAS, BMI 점수가 명료하게 구별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체질별 SPQ 및 PANAS의 프로파일이 서로 다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profile analysis를 시행하였다.

SPQ 및 SPQ 하위척도에 있어서 사상체질 그룹들 사이에 유의한( $p < 0.001$ )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사후검정 결과, SPQ 및 SPQ-B에 있어서는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간에 서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SPQ-E에 있어서는 소음인~소양인, 태음인~소양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SPQ-C

에 있어서는 태음인~소음인, 소음인~소양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사상체질 그룹들의 SPQ 프로파일은 flatness ( $F = 72.610$ ,  $df = 2$ ,  $p < 0.001$ )와 parallelism ( $F = 4.920$ ,  $df = 4$ ,  $p = 0.001$ )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igure 1).

PANAS에 있어서는 사상체질 그룹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ANOVA를 통하여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Table 1), 사상체질 그룹들의 PANAS 프로파일을 분석한 결과 flatness (Greenhouse-Gaiser test,  $F = 11.854$ ,  $df = 1$ ,  $p = 0.001$ )와 parallelism ( $F = 3.641$ ,  $df = 2$ ,  $p = 0.028$ )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

BMI에 있어서는 분산분석 결과 사상체질 그룹들 사이에 유의한( $p < 0.001$ )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Table 1), 사후검정 결과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IV. 考察 및 結論

본 연구에서는 SPO<sup>6</sup>와 BMI 및 PANAS와의 상관성을 고찰하였으며, QSCCII를 기준으로 한 사상체질별 SPO, PANAS, BMI 점수들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SPO와 BMI는 유의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SPO와 PANAS는 하위척도 등에서 흥미로운 유의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사상체질별 BMI 점수는 ANOVA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상체질 그룹별 PANAS 점수에 있어서 유의한 프로파일 차이가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BMI에 있어서는 태음인(24.33±2.73)이 소양인(21.64±2.27)과 소음인(20.85±2.36)보다 유의하게 높다는 사상체질별 생리적 특성이 재확인되었으며, 상관분석을 통해서도 SPO와 BMI가 상호 독립적( $r=0.097$ )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BMI가 '소음/소양-태음'이라는 축을 반영하면서, SPO의 '소음-태음-소양'이라는 축과는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PANAS에 있어서 사상체질별 PANAS-NA와 PANAS-PA 점수를 분석한 결과, 각 체질들은 서로 유의하게 다른 PANAS 프로파일을 지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Figure 1), 소음인이 태음인/소양인과는 다른 프로파일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비록 사상체질별 PANAS 점수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p=0.090$ ), PANAS-PA에 있어서는 소음인(13.76±5.64)이 태음인(15.51±7.90)과는 고려할 만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sup>11</sup>에 있어서 소음인(13.38±6.03)이 태음인(18.71±8.75)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PANAS-PA에서의 소음인과 태음인 사이의 차이는 더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PANAS와 SPO간의 상관관계에 있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NEO-PI Neuroticism과 SPO 하위척도의 상관관계<sup>6</sup>에서 나타났었던 것과 같이, PANAS-NA와 SPO-E( $r=0.221$ )에서는 정적상관인 반면, PANAS-NA와 SPO-B( $r=-0.199$ ) 및 SPO-C( $r=-0.186$ )는 이와는 반대로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sup>6</sup>에서 제시되었던 바와 같이 SPO-E라는 하부척도가 SPO-B와 SPO-C와는 서양 심리학적으로 구별되는 성격적 특성을 반영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보인다. 이에, 서양의학에서의 신경증(neuroticism)이나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ion)와 정적 상관성을 보이는 SPO-E가 어떠한 이유로 상반된 특성을 반영하는 SPO-B나 SPO-C와 하나의 척도로 묶이게 되는지는 흥미로운 주제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한의학에서의 음양론적 대상관(對象觀)<sup>18</sup>과 같은 동양적 사유(思惟) 구조에서 찾을 수 있겠는데<sup>6</sup>, 서양 심리학에 있어서는 SPO-E와 같은 감정의 변화를 변덕스러움(whimsicality)이나 불안정(unstable)한 것으로 보기에 부정적(negative) 의미를 부여하게 되지만, 한의학에 있어서는 성격 및 감정에서의 변동성(variability)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양(陽)으로 분류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큰 감정의 변화, 속이야기를 잘 드러내며, 쉽게 흥분하는 것을 반영하는 SPO-E가 빠른 반응이나 보다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행동, 적극적인 자기의견과 같이 행동적 변화가 큰 것을 측정하는 SPO-B나 대범한 성격, 직설적 표현, 쉬운 결정과 같은 인지적 특성을 측정하는 SPO-C가 모두 하나의 방향성으로 묶이게 된 것은, 움직이는 것은 모두 양(陽)으로 분류한다는 한의학적 관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PANAS-NA와 PANAS-PA가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sup>11</sup>을 고려할 때, PANAS-PA는 SPO-B와 유의한 정적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PANAS-NA는 기존의 신경증(Neuroticism)과의 비교연구 결과<sup>6</sup>와 유사하게 SPO-E와 유의한 정적 상관성을 지니며, BMI는 SPO와는 상호 독립적인 별도의 생리심리학적 축(axis)일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 추가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상체질 진단방법으로서 QSCCII를 사용하였는데, SPO의 타당성을 보다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사상체질의학 전문의의 진단에 근거한 후속 연구를 통해 재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평균 29세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과 함께 사상체질 그룹별 분포에 있어서의 차

이를 감안한다면 다양한 연령군 및 직업군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와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만 SPQ 문항의 개발과정에 있어서 사상체질의학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여왔다는 점<sup>14</sup>과 함께 TCI, NEO-PI, 및 BMI와 같은 사상체질별 생리심리학적 프로파일이 기존의 연구결과<sup>9</sup>들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와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는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SPQ와 PANAS 및 BMI 측정치간의 상관성과 함께 사상체질군별 생리심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SPQ 및 SPQ 하위지표와 기존의 생리심리학적 검사간의 상관성과 사상체질별 생리심리학적 특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SPQ와 다양한 기존 검사들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추가연구를 통하여, 한의약 임상에서의 생리심리학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진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다학제 연구를 통해 한의학과 서양 심리학간의 비교 연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V. 參考文獻

- 1) Park SJ, Kang KR, Kim SA, Hwang SM, Chae H. Systematic Review on the Study of Sasang Typology Published in Korea from 2000 to 2009.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1;25(4):721-727. (Korean)
- 2) Lee SW, Jang ES, Lee J, Kim JY. Current Researches on the Methods of Diagnosing Sasang Constitution: An Overview. Evidence-based CAM. 2009;6(s1):43-49.
- 3) Kim HJ, Lee SW, Kim JY.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of Constitutional Medical Care Service. J Sasang Constitut Med. 2006;18(3):166-174. (Korean)
- 4) Lee SJ. Study for Research Trends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by Researchers in Other Fields. J Sasang Constitut Med. 2010;22(3):67-74. (Korean)
- 5) Noble D. Could there be a Synthesis between Western and Oriental Medicine, and with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n Particular?.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09;6(S1):5-10.
- 6) Chae H, Lee SW, Park SH, Jang ES, Lee SJ.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ersonality Assessment Instrument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2; Article ID 657013, 12 pages, doi:10.1155/2012/657013
- 7) Chae H, Lyoo IK, Lee SJ, Cho S, Bae H, Hong M, et al. An alternative way to individualized medicine: psychological and physical traits of Sasang typology. J Altern Complement Med. 2003;9:519-528.
- 8) Park SH, Kim MG, Lee SJ, Kim JY, Chae H. Temperament and Character Profiles of Sasang Typology in an Adult Clinical Sample.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1; Article ID 794795, 7 pages, doi:10.1093/ecam/nep034
- 9) Chae H, Park SH, Lee SJ, Kim MG, Wedding D, Kwon YK. Psychological profile of Sasang typology: a systematic review.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09;6(s1):21-29.
- 10) Song MS, Baek JU, Choi CH. Study of Psychological Traits in Sasang Constitution According to QSCC II, MBTI, STAI. Kor. J. Oriental Preventive Medical Society. 2009;13(2):65-76. (Korean)
- 11) Yoon MY, Lee SK, Sohn KW, Lee SJ, Park SH, Yang JW, et al. Psychological Analysis of Sasang Types using PANAS.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1;25(2):345-351. (Korean)
- 12) Kim S, Ko B, Song I.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QSCC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2. J Korean Oriental Med Soc. 1996;17:337-393. (Korean)
- 13) Choi S, Chi S, Jung B, Ahn K, Koh B, Sung H.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sang Constituin and Myer-Briggs Type Indicator.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2000;6(1):47-57. (Korean)
- 14) Kim MG, Lee HJ, Kim HJ, Yoo JH, Kim J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ordinary symptoms from the viewpoint of Sasang Constitution and cold-hot.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8;22:1354-1358. (Korean)
- 15) Watson D, Clark L, Tellegen 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8;54(6):1063-1070.

- 16) Lee YJ. The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on mood level and its variability. Chungang University Ph.D. thesis;1994.(Korean)
- 17) Lee HH, Kim EJ, Lee MG. A Validation Study of Korea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The PANAS Scal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3;22(4):935-946.(Korean)
- 18) Lee YT, Khang KH. Yin-Yang and physiology: Physiology Professors of Korean Medicine. *Physiology in Eastern Medicine*. Paju:Jipmundang. 2008:25-51.